

의미(意味)의 구성(構成)에 관한 설명(說明) 방식(方式) ¹⁾

박영목(朴泳穆) ²⁾

1. 머리말

사람들은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설명 방식은 분석의 범위를 단어에 두느냐 문장에 두느냐 텍스트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위의 물음에 대한 설명 방식은 설명의 이론적 토대를 의미론에 두느냐 화용론에 두느냐 심리학에 두느냐 사회학에 두느냐 독해 이론에 두느냐 작문이론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물음에 대한 설명 방식을 텍스트의 의미 구성 현상을 주로 탐구하는 작문 이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전통적 수사 이론에 그 뿌리를 둔 작문 이론은 최근에 이르러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닌 의미 구성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지난 1960년대 이후의 작문 이론을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으로 구분하여 각 이론의 배경, 특징,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새로운 통합으로 생겨난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의 의미 구성 현상에 대한 설명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아울러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생성 배경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조명해 보고 의미 구성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개념과 의미 구성 형식으로서의 장르의 개념을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작문 이론의 변천 동향

작문 행위는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이다. 의미 구성 행위의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문 이론은 수사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수사 이론은 언어와 지식과 담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본질주의, 객관주의, 표현주의, 사회주의 수사 이론 등의 네 가지 부류로 분류되기도 한다 (Knoblauch, 1988). 본질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의 형식적 속성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언어가 지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지식을 전이하는 데는 결정적

1) 이 논문은 선청어문 제22집(제효 이용주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199-219.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과, 1994년)에 게재된 논문임.

2) 홍익대 사대 국어교육과 교수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객관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가 본체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식은 언어 사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현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를 통한 인간의 의식 작용 및 상상 작용을 중시하는 수사 이론이고, 사회주의 수사 이론은 언어를 물질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 뿌리를 둔 사회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수사 이론이다.

수사 이론뿐만 아니라 작문 이론 분야에서도 의미의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Berlin (1987)은 이들 다양한 작문 이론을 인지주의적 작문 이론, 표현주의적 작문 이론, 사회인지주의적 작문 이론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문 이론의 변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발달해 왔는데 각 시대별 작문 이론의 특징적인 경향을, 형식주의 작문 이론, 구성주의 작문 이론,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 대화주의 작문 이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Nystrand, Greene, & Wiemelt, 1993). 다음에서는 이들 각 작문 이론의 특징적인 경향을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활동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형식주의 (Formalism) 작문 이론

1960년대 이전까지의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 문학 분야에서의 신비평 이론이 성행하던 이 시기에 있어서의 작문 이론은 규범 문법과 수사론적 규칙을 강조하였으며, 작문 교육은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중시하고, 표현의 과정에서 어법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지도의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작문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mig, 1971). 첫째, 지도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표준적인 어법에 따라 단어를 결합하여 정확하고 유연한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둘째, 문장과 문장을 결합하여 명료하고 통일성이 있으며 체계적으로 조직된 단락을 만들도록 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작문 교육 방법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배경 내지 이유는, 어떠한 텍스트이든 간에 일원적이고 영속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텍스트의 의미에 관한 신비평 이론의 전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객관성을 중시하였다.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는 텍스트 구성 요소의 분석과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분석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작문, 독해, 사고 등의 인지적 행위와 관련되는 증거들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피상적인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이러한 주장은 문학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주의에 바탕을 둔 행동주의 언어학 이론에서도 중시되었다. 즉, 언어는 관찰이 가능한 언어 행동과의 관계 아래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언어 행동의 기저가 되는 정신 작용에 대한 연구는 언어 현상의 실체를 혼란시키기만 한다고 주장한다.

의미의 구성 방식에 관한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는 객관적인 요소들로 조직된 고정된 체계이다. 둘째, 텍스트의 의미는 그 자체로서 자율성을 지닌 텍스트 내에 인입되며, 그 텍스트는 필자가 표현한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다. 셋째, 문어 텍스트는 구어 텍스트에 비해 명시적이다. 넷째, 텍스트의 의미는 그 텍스트를 생산한 필자와 생산 맥락에 관한 추론을 배제함으로써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텍스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를 의미의 전달자로, 독자를 의미의 수동적인 수신자로 취급하며, 텍스트 생산 능력 즉 의미 구성 능력은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2.2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작문 이론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형식주의 작문 이론은 작문의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 풍토가 성행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Braddock 등(1963)은 필자의 기존 지식, 사회 경제적 배경, 작문의 상황, 작문과 독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Moffet(1968)은 텍스트의 생산에 관한 연구는 필자와 주제 사이의 관계 및 필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작문 능력의 발달은 보다 추상적인 주제와 광범위한 독자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발달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Britton (1975) 역시 작문 과정에서의 인지 작용을 중시하였는데, 언어는 경험을 표상하는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조정하는 개별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Emig (1970)은 작문 교육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 결과로서의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지도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표현의 과정을 밝히기 위한 실증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작문은 기본적으로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 즉 계층적으로 조직된 인지적 표상을 텍스트로 번역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작문 이론가들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다 (Applebee, 1981; Flower & Hayes, 1981; Frederikson, 1981 등). 인지 심리학과 수사 이론의 결합을 통하여 생성된 구조주의 작문 이론은 작문 과정에서의 계획하기 작용과 고쳐쓰기 작용이 서로 다른 상황 및 서로 다른 수준의 필자 사이에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고 형상화함으로써 그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성된 의미는 심리적 표상 혹은 인지도식 (Schematta) 으로서 인간의 두뇌 속에 저장되어 지각, 이해, 기억 등의 정신 작용을 조정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작용을 활성화한다.

구성주의 작문 이론이 태동한 배경에는 문학 분야에서의 신비평 이론의 쇠퇴와 함께 Cambridge 학파의 새로운 언어학 이론의 등장이 큰 역할을 하였다. Bloomfield 학파의 형식주의 언어학 이론에 대한 반동으로서 Chomsky와 그의 동료들은 언어학의 초점을 형식적인 언어 구조로부터 언어 사용자가 언어 구조를 구성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전화시켰으며, 언어학의 목적을 고도로 추상적인 보편 문법의 기술에 두었다. Chomsky (1972)는 Saussure (1959)가 강조한 추상적인 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정신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는 고도로 추상적인 심층 구조로서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중시하였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행동 및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행동을 조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중시하는 관점으로의 전환은 언어 연구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Chomsky, 1986),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언어의 인지적 처리 과정을 의미 생성의 원천으로 보는 구성주의적 작문 이론을 사회 과학 분야에서의 의사 소통에 관한 연구에서도 널리 수용하게 되었다.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개별적 작문 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필자의 계획과 목적과 사고를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수사론적 문제 해결자로, 독자를 능동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해석자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개인의 목적 의식과 사고 능력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2.3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작문이론

1970년대의 작문 연구가 언어의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다면 1980년대의 작문 연구는 언어 사용의 사회적 해석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의 배경에는 언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언어학의 경우 Fillmore (1968)를 비롯한 일군의 언어학자들이 심층구조가 의미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변형 생성 문법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담화로서의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는 사회언어학자들이 Chomsky의 언어에 대한 기본 가정에 도전하게 되었다. Labov (1970)는 문법성과 언어 능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Hymes (1974)는 언어 능력의 개념을 확장하여 언어 공동체 내에서 언어 사용자가 갖는 의사 소통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Grice (1975)를 비롯한 화용론자들은 언어를 행위의 방식인 동시에 삶의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Chomsky의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의 구분이 갖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Chomsky의 이론에 대한 도전은 텍스트 연구 분야(Kintsch & van Dike, 1978), 담화 분석 분야(Brown & Yule, 1983), 화용론 분야 (Leech, 1983; Levinson, 1983)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들 각 분야에서는 언어를 사회적 현상 및 기능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언어 사용의 사회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언어학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을 태동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쳤다. 언어의 사회성 및 기능성을 강조하는 언어 연구의 동향에 부응하여 작문 이론가들은 작문의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주장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BizzeII (1982)은 작문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고와 언어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지 않는 것을 구성주의적 작문 이론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Faigley (1985)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은 특수한 형태의 담화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특정 사회 집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작문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의하면 필자 개개인은 개별적으로 작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제약을 가하는 언어 사용 집단 혹은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작문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에 있어서 담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후기구조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Fragley, 1986).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사회적 맥락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 외에는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다름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은 구조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구조주의적 성격은 언어와 의미에 관한 전제에서 잘 드러난다. 이 이론에서는 독자를 해석 공동체를 표상하는 사람으로 보고, 독자의 해석은 해석 공동체의 평가 기준에 따라 구조화 된다고 주장한다 (Fish, 1980).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기저가 되고 있는 구조주의는 일반적으로 형식주의 이론의 극복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간 행동과 내성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추상적인 체계로 된 매개 구조를 드러냄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형식주의 이론이 텍스트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텍스트의 구성 요소에 주된 관심을 두는 반면에 구조주의 이론은 텍스트와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규명하는 데 주된 관심용 갖는다 (Gardner, 1972). 그리하여 구조주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일상의 경험의 흐름으로부터 보편적인 유형을 식별하는 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행동과 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규칙을 생성하는 데 관심을 두며, 조직적인 측면에서 모든 행동과 내성의 역동성을 규명하는 데 관심을 둔다.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의 집합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독자를 해석 공동체의 사회화된 구성원으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건전한 상식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건전한 상식의 계발은 언어 사용 집단으로서의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 공동체의 참여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2.4. 대화주의(Dialogism) 작문 이론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성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담화 행위로서의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작문 이론이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의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Bakhtin (1986)이다. 의미는 텍스트에 내재한다는 형식주의 작문 이론이나, 의미는 발신자에 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는 달리 Bakhtin은 언어의 의미는 특정 개체의 의식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의 맥락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른 사람의 언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성화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언어의 의미는 발신자의 목적과 수신자의 기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대화주의적이라고 설명한다. Bakhtin의 대화주의적 원리는 언어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적 기능주의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Halliday (1985)는 언어 맥락과 인지 작용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중재하는 언어의 기능을 중시하

여, 사람들은 세상사에 대한 경험을 조직하고 그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언어라는 기호 체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의미 구성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성을 중시한다(Nystrand, 1986, 1989). 이들에 의하면 텍스트의 의미는 필자의 의도에 있는 것도 아니며 텍스트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텍스트는 단지 잠재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 의미는 언어 사용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후기 구조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미와 지식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언어 맥락에 의존하고, 정치적 역사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고 부분적이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언어 생산 과정은 어떤 기저 형식이나 체계에 따라 사고를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언어 사용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역동적이며 한시적인 과정이다. 또한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어진 맥락을 자신의 글 속에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그 자체를 만들어 나간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가들의 의미 구성에 관한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특정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담화 당사자들(필자와 독자) 사이에서 역동적이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의 과정이다. 둘째,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나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현상 속에 내재한다. 셋째, 텍스트는 언어 사용자 자신과 타인, 인지 작용과 언어 맥락,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호학적인 측면에서 중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그 자체이다. 이와 같이 대화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담화 행위로서의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개념을 정통적인 언어 사용자 사이의 기호론적 매개체로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는 필자와 독자 모두를 정통적인 언어 사용자로 본다. 또한 텍스트를 통한 의미 구성 능력은 상호 교호성의 계발을 통하여 신장되는 것으로 설명하며, 상호 교호성의 계발은 필자와 독자의 협상과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의미의 구성에 관한 사회인지주의적 설명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종류의 작문 이론, 즉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미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작문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된 연구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Nystrand 외 1993). 그러나 이 시기의 작문 이론들을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범주화한 것은 작문 이론의 특징적인 경향을 인접 학문과 연관을 지으면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편의상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작문 이론이 다른 작문 이론에 의해 그렇게 쉽게 대치되는 일도 없거니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작문 이론이 거의 비슷한 세력으로 서로 다른 작문 연구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작문 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서의 작문 연구는 세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첫 번째 변화는 규범적 형식주의에서 기술적 형식주의로의 변화이다. Olson(1977)과

Hirsch (1977) 등은 Wariner(1950), Strunk와 White(1959) 등의 규범적 형식주의 작문 이론 대신에 1970년대의 새로운 실증적 연구 풍토를 반영하여 기술적 형식주의 작문 이론을 제시하였다. 작문 이론 분야에서의 두 번째 변화는 기술적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 인지주의 작문 이론으로의 변화이다. 세 번째 변화는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서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으로의 변화이다. 다음에서는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을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1.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생성 배경

작문 연구사에 있어서 1970 년대를 작문의 인지적 과정을 규명한 시기라고 한다면 1980 년대는 작문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을 규명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작문 이론에 있어서 사회적 측면이 크게 부각된 외적 요인으로서는 작문 교육 분야에서의 범교과적 작문 (writing across curriculum) 프로그램의 성행을 들 수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서는 인지주의 작문 이론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두를 들 수 있다 (Nystrand, 1989).

작문의 과정에서 필자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필자가 처한 작문 상황을 철저히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필자는 실제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난해하면서도 문제투성이인 사고의 통로를 헤쳐 나가면서 상충되는 문제 상황과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Flower, 1993). 실제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예상하는 교사의 기대치와 교사의 실제 기대치는 매우 상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Geisler, 1991; Greene, 1993). 이러한 불일치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적절한 논거 혹은 타당한 내용인지,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예상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예들은 작문 능력이 인지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기능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작문 연구 분야에서 사회적 기능 및 인지적 기능을 동시에 중시하는 연구 풍토가 조성된 데에는 언어 발달에 관한 사회역사적 관점을 주창한 Vygotsky (1978)의 영향도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Vygotsky에 의하면 모든 기호 체계의 주된 기능은 한 개인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규제 및 조정에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을 통한 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문 능력의 발달에 관한 사회인지주의적 작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서 Langer와 Applebee의 학교 작문 연구 (1984, 1987), Daiute와 Dalton의 협동 작문 연구 (1989) 등을 들 수 있다.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인 사회인지 (social cognition) 이론 역시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 작문의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사고에 관한 추론을 하거나 사고의 질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회인

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고 전략은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작성한 텍스트만을 보고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고의 사회적 맥락을 보지 않으면 작문 수행 능력을 결정짓는 인지 작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Hull & Rose, 1990). 텍스트의 실질적 의미는 필자 자신과 타인 사이, 개인과 사회 사이의 지적이며 정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3.2.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 중의 대표적인 인물인 Miller(1984)는 의미의 구성 형식으로서의 장르를 텍스트의 형식이나 본체로 보지 않고, 순환적 상황에 근거를 둔 전형적인 수사론적 행위, 즉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작문을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특정 활동에 내포된 일상적 인지 (situated cognition)로 규정하기도 한다 (Huckin & Berkenkotter, 1993).

작문에 있어서의 사회적 맥락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별 필자는 텍스트 생산의 실제적 조건, 필요, 동기 등이 사회적 맥락에 반응하게 되며, 텍스트 공동체는 이들 개별 필자가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근거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문제 및 표현의 목적 등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인지 작용과 사회적 맥락은 변증법적인 상호 영향 관계에 놓이게 된다 (Myers, 1991). 또한, 텍스트는 사회적, 역사적, 인지적, 수사론적 활동의 복합체인 사회적인 맥락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됨과 동시에, 텍스트는 주어진 텍스트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과 맥락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 (Bazerman, 1991).

언어 사용자로서의 필자는 텍스트 공동체에 속한다. 필자는 단순히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공동체 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관한 작업, 즉 의미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단순히 예상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만든 텍스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Fraigley, 1985). 그런데 텍스트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문 행위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은 작문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즉 필자 개인은 사회적인 존재인 동시에 개인적인 존재이지만 사회 집단은 결코 개인적인 존재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별 필자가 자신이 속한 텍스트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텍스트 공동체로서의 집단이 필자 개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마치 인지주의 작문 이론에 있어서 사고를 텍스트로 번역하는 기제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상통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문 연구자들 언어 생산 및 담화 분석에 관하여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의 담화 분석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향은 담화를 단순히 논리적 형식으로만 보지 않고 의사소통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담화의 화제 및 장르와 함께 담화

자 쌍방의 의도와 기대를 추정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담화는 화제 및 담화의 내용에 대한 담화자 쌍방의 지속적인 추정에 의하여 구조화된다. 이렇게 구조화된 담화는 결국 담화자 쌍방 간에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담화의 촉발은 바로 일시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실체이며, 담화 그 자체는 일시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실체의 점진적인 조장 및 확장의 결과인 것이다 (Rommetvit, 1974).

대화자 쌍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일종의 상호작용적 협상의 과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와 독자 사이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말 주고받기와 같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필자와 독자 사이에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의미의 전달 및 공유하고 있는 지식의 변형과 같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텍스트는 필자가 무언가를 전달하기 원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고 해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구성과 그 방향은 필자 자신의 의도 및 목적과 독자의 기대 및 요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사소통적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필자의 의사소통적 요구는 작문 행위의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변인들, 즉 필자가 예측하고 해석하는 독자의 기대, 독자에 대한 선행 의사소통의 영향, 필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텍스트의 영향, 필자가 예측하는 독자의 반응, 의사소통을 시발하는 맥락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작문의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 (Nystrand, 1989)에서는 작문의 개념을 필자의 목적과 의미를 텍스트로 번역하는 과정인 동시에 필자와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에 대한 협상의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텍스트를 필자의 목적과 의미를 번역한 결과물로서 뿐만 아니라 필자와 독자의 목적과 의미를 중재하는 의사소통의 매개물로서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숙련된 필자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로서 텍스트의 시발, 텍스트 생산의 유보, 텍스트의 정교화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텍스트를 시발한다는 것은 필자와 독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본 골격, 즉 의사소통의 상황을 명료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일단 숙련된 필자가 의사소통의 상황, 즉 일시적으로 공유된 사회적 실체를 시발한 다음에는 새로운 정보의 도입을 통하여 텍스트를 정교화 해 나간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위협하게 되면 텍스트 생산을 일단 유보하고 새로운 정보를 사회적 맥락에 적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텍스트의 균형성을 유지해 나간다. 필자와 독자 사이의 균형성이 확보되면 숙련된 필자는 장르와 주제와 내용 면에서 텍스트를 정교화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인 텍스트를 생산하게 된다.

3.3.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과 장르

작문 이론 분야에서의 장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태동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장르 연구의 대부분은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계층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Miller, 1984).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장르

의 개념을 사용 조건에 따라 조정되는 역동적 수사구조로 규정하고, 장르 지식은 텍스트 공동체 내에서의 지적 활동 속에 내포되는 일상적 인지 (situated cognition)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설명한다.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 분야에서는 장르 이론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는 원리를 역동성, 일상성, 내용과 형식의 적합성, 구조의 양면성, 공동체적 소유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Berkenkotter & Huckin, 1993), 다음에서는 이들 원리 중에서 역동성과 일상성을 중심으로 의미 구성 형식으로서의 장르의 특성을 사회인지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장르는 역동적인 성질을 지닌다. 장르는 순환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도출되는 수사론적 형식으로서 필자의 경험에 질서와 일관성을 부여한다. 장르는 사용자의 사회인지적 요구에 대한 반응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텍스트의 생산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특징적인 반응이 생성된다. 이러한 반응에 따라 수사론적 형식으로서의 장르가 생겨난다. 여기에서 상황의 순환성은 단순한 외적 조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 현상 및 사회적 현상까지 지칭한다. Miller(1984)는 장르의 개념을 수사론적 상황에 대한 순환적 반응으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 형성 과정으로서의 전형화의 개념과 결부시켰다. 그는 전형화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사 이론에서 다루어 온 장르의 분류 체계를 탈피하고, 일상적 의사 소통의 전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의 개념을 설정하였다. Miller(1984)에 의하면 필자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은 새로운 경험을 배태할 수 있을 때에만 유용한 것이다. 새로운 경험은 기존의 경험과의 상호 유사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친숙한 경험으로 변형된다. 그리고 그러한 유사성은 하나의 전형을 형성한다. 여기에서 순환되는 것은 물리적 상황이 아니라 전형이다. 전형화된 상황은 수사 이론에서의 전형화의 기저가 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의사 소통 참여자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통의 전형을 공유할 때에만 가능하다.

언어가 영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변화성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르는 순환적 상황에 대한 간주관적 지각을 일정한 유형 속에 담아 둘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식의 변화를 허용한다. 세계의 물리적 조건과 세계에 대한 집단적 지각 및 개인적 지각이 변화함에 따라 전형화에 의해 생산되는 전형성도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각 개인은 세계에 대하여 나름대로 형성한 지식 유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귀납된 보편성에 대한 지각은 차이에 대한 각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근절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르는 영속성과 변화성 사이를 연결 짓는 축의 범위 안에 놓이며, 개별적인 언어 사용자의 사회인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갖는다.

장르는 일상적인 성질 (situatedness)을 지닌다. 장르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지식은 일상적 활동이나 직업적 활동에서의 의사소통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획득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여 행위에 관여하게 된다. 장르에 대한 지식은 일상적 인지의 형태를 띠게 되며, 특정 언어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계속해서 발달해 나가게 된다.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장르에 대한 지식은 정규 교육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교육되기보다는 특정 텍스트 공동체 내에서의 의미 구성 방식에 대한 사회화 연습, 즉 문화

적용 연습을 통하여 전이된다.

일상적인 의사소통 활동에서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반응의 형태와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에서 언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반응의 형태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Bakhtin(1986)은 이와 같은 상이한 반응과 관련하여 1차적인 장르와 2차적인 장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1차적인 장르는 그 장르가 발생하는 환경 속에 실재하지만 2차적인 장르는 그러한 실재성이 제거된다. 소설이나 희곡 또는 연구 논문 등과 같은 2차적인 장르는 복잡하고 잘 조직된 의사소통의 문화에서 발생한다. 2차적 장르의 형성 과정에서 1차적 장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2차적 장르 속에 흡수되고 소화된다. 학문적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이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일상적 의사소통 행위를 바탕으로 한 의미 구성 행위, 즉 문화적 적용 연습을 통해 도출된다는 시각은 결과적으로 장르 지식이 일상적 인지의 형식을 띠게 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협상, 활동 등에 관한 경험을 통하여 언어 사용자는 그들의 언어 사용 형식을 보다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학문 영역이나 직업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문화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르 지식과 유사한 장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르는 텍스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적 골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르는 주어진 상황의 수사론적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변화성과 역동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순환성을 띤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영속성을 지닌다. 학문 영역에서의 텍스트 생산 활동, 즉 의미 구성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필자들은 자신이 속한 텍스트 공동체에 적합한 장르 유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장르 선택에 있어서 신기성과 전통성의 조화에 대한 요구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학문 영역의 지적인 내용이 변화하게 되면 그 내용을 논의하는 데 사용되는 의미 구성 형식으로서의 장르 역시 변화한다. 개별 필자는 텍스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르를 사용함으로써 텍스트 공동체의 구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텍스트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장르는 그 집단의 이념과 인식 방법과 사회적 실체로서의 특성을 드러내 준다.

4. 맺는말

작문 행위는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문제 해결 행위이며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의미 구성 행위이다. 지금까지 의미 구성 현상의 설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문 이론을 형식주의,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대화주의 작문 이론으로 구분하여 각 이론의 배경과 특성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구성주의 작문 이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의 통합으로 인하여 생성된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을, 생성 배경, 사회적 상호 작용, 장르 등으로 구분하여 의미 구성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 중에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

고, 인지작용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본 사회인지주의 작문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작문 연구에 있어서 인지와 사회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성 그 자체를 주장하기는 쉬워도 그러한 상호작용성의 실체를 탐구하거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어떤 현상과 관련하여 그 현상을 구성 하는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지와 사회적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잠정적으로 분리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Flower, 1993).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지 작용을 강조하는 사회 인지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두 가지 측면을 구성하는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 Applebee, A. (1981). *Writing in the secondary school*. IL: NCTE.
- Bakhtin, M. M. (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V. W. McGee Trans.; C. Emerson & M. Holquist. Eds.). University of Texas Press.
- Bazerman, C. (1991). How natural philosophers can cooperate. In C. Bazerman & J. Paradis (Eds.). *Textual dynamics of the profession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erkenkotter, C., & Huckin, T.(1993). Rethinking genre from sociocognitive perspective. *Written communication*. 10. 475-509.
- Berlin, J. (1987). *Rhetoric and realit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Bizzell, P. (1982). Cognition, context, and certainty. *PRE/TEXT*. 3. 213-224.
- Braddock, R., Lloyd-Jones, R., & Scherm, L. (1963). *Research in written composition*. IL: NCTE.
- Britton, J., Burgess, T., Martin, N., Mcleod, A., & Rosen, H. (1975). *The development of writing abilities: 11-18*. London: Macmillan.
- Brown, G. & Yule. G. (1983). *Discours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72). *Language and mind*. New York: HBJ.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Daiute, C. & Dalton, B. (1989). Let's brighten it up a bit: collaboration and cognition in writing. In B. Rafoth & D. Rubin(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written communication*. NJ: Ablex.
- Emig, J. (1970). *The composing processes of twelfth graders*. IL: NCTE
- Faigley, L. (1985). Nonacademic writing: The social perspective. In L. Odell & D. Goswami(Eds.) *Writing in non academic setting*. New York: Guilford.
- Faigley, L. (1986). Competing theories of process. *College English*, 48, 527-542.

-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 R. T. Harn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London: Holt, Rinehart & Winston.
- Fish, S. (1980).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Flower, L. (1993). Cognitive rhetoric: Inquiry into the art of inquiry. In T. Enos & S. Brown (Eds.). *Toward defining a new rhetoric*. CA: Sage.
- Flower, L. & Hayes, J. R. (1980).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2, 365-387.
- Gardner, H. (1972). *The quest for mind: Piaget, Levi-Straus, and the structuralist movement*. New York: Vintage.
- Geisler, C. (1991). Toward a sociocognitive perspective on literacy. In C. Bazerman & J. Paradis (Eds.), *Textual dynamics of the profession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Greene, S. (1993). The role of task in the development academic thinking through reading and writing in a college history course.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26, 47-76.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iday, M. A. K. & Hasan, R. (1985). *Language, context, and text*. Australia: Deakin University.
- Hirsch, E. D. Jr. (1977). *The philosophy of compos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ull, G., & Rose, M. (1990). This wooden shack place: the logic of unconventional read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1, 287-298.
- Hymes, D. (1974). *Foundations in sociolinguistics*.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 Kintsch, W. & van Dijk, T. (1978). Toward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 363-394.
- Knoblauch, C. H. (1988). Rhetorical consideration: Dialogue and commitment. *College English*, 50, 125-140.
- Labov, W. (1970). The logic of non-standard English. In J. Alatis (Ed.). *Georgetown University monograph seri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22.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anger, J. A. & Applebee, A. N. (1984). Language, learning, and interaction. In A. N. Applebee (Ed.), *Contexts for learning to write*. NJ: Ablex.
- Langer, J. A. & Applebee, A. N. (1987). *How writing shapes thinking*. IL: NCTE.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C. (1984). Genre as social ac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0, 151-167.
- Moffet, J. (1968). *Teaching the universe of discourse*. Boston: Houghton Mifflin.
- Myers, G. (1990). Stories and styles in two molecular biology review article. In C. Bazerman & J. Paradis (Eds.), *Textual dynamics of the profession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Nystrand, M. (1986). *The structure of written communication*. London: Academic Press.
- Nystrand, M. (1989). A social-interactive model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6, 66-85.
- Nystrand, M. Greene, S. & Wiemelt, J. (1993). Where did composition studies come from. *Written Communication*, 10, 267-333.
- Odell, L. & Goswami, D. (1982), Writing in a non-academic setting.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16, 201-223.
- Olson, D. R. (1977), From utterance to text: The bias of language in speech and writing.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257-281.
- Rommetvit, R. (1974). *On message structure: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London: Wiley.
- Saussure, F. de. (1959).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W. Baskin. Trans.). New York: The Philosophical Library. (Original work published 1922).
- Strunk, W. & White, E. B. (1959). *The element of style*. New York: Macmillan.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 Warriner, J. (1950). *English grammar and composition*. New York: HBJ.
- Witte, S. P. (1992). Context, text, and intertext: Toward a constructivist semiotic of writing. *Written Communication*, 9, 237-308.